coupang newsroom

[보도자료] 쿠팡, 물류센터 통근버스에 업계 최초 열 감지 키오스크 설치

2021. 8. 2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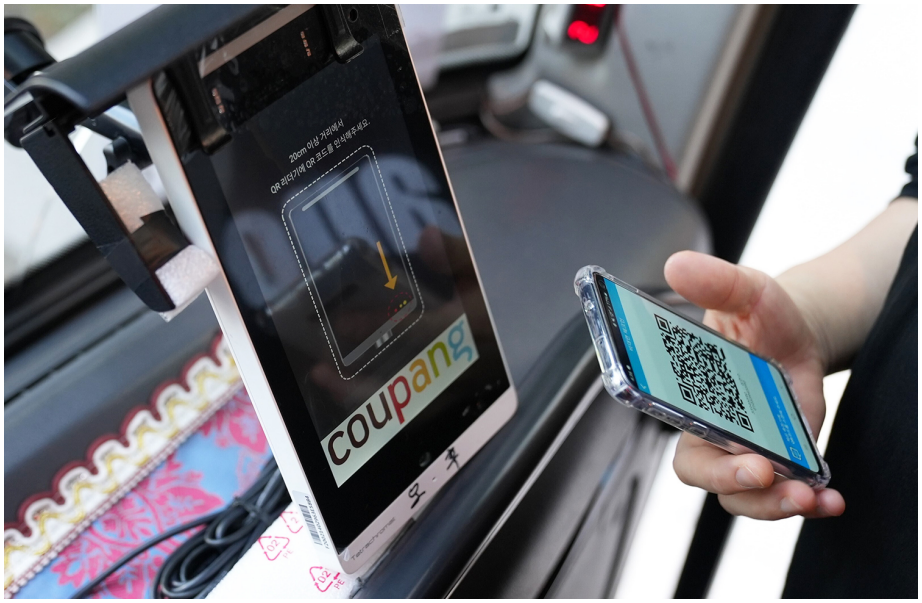
- **탑승 전 비대면 체온 측정과 좌석번호 선택 위해 버스마다 키오스크 설치하고 자동화 시스템 마련**
- **방역수칙 준수하는 셔틀버스 운영으로 물류센터 직원들의 안전 보호 연 760억원 비용 소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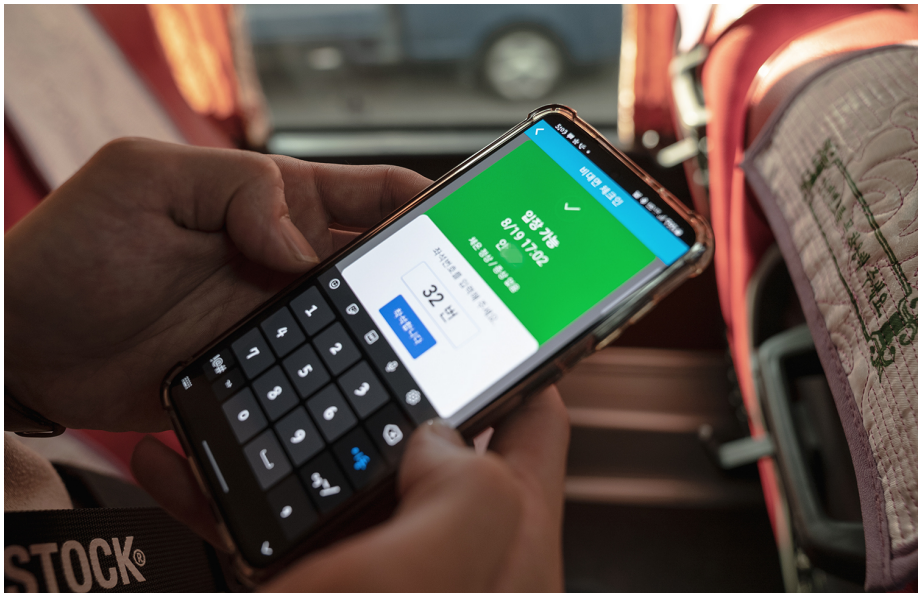
2021. 8. 20 서울- 쿠팡풀필먼트서비스(이하 "쿠팡")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물류센터 통근 셔틀버스에 체온 측정과 좌석번호 입력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직원들의 출퇴근길 안전을 챙기고 있다.

쿠팡은 버스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탑승 전 체온을 체크하고, 정상 체온이 아닌 직원의 경우 버스에 탑승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. 기존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사람이 직접 체온을 체크했으나 최대한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왔다.

또 키오스크 QR 스캔을 통해 본인이 앉을 좌석번호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 만약 탑승객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확진자가 이용한 버스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했다. 쿠팡은 이와 같이 셔틀버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마련에 총 17억원 가까이 추가 비용을 집행했다.

쿠팡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일반 대중교통 대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셔틀버스로 집과 직장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. 일용직, 계약직을 포함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누구나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을 원하는 직원은 스마트폰에 셔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손쉽게 발권을 신청할 수 있다.





현재 전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직원 출퇴근용으로 매일 총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운영 중이며, 2021년 상반기 기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만 한달 평균 약 63억원에 달한다. 연간 약 760억원의 비용을 들여 직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직장을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쿠팡 마장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우요셉 씨는 "코로나 시국에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회사 셔틀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어 정말 다행"이라며 "전원이 발열 체크를 통해 정상 체온임을 확인하고 탑승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고,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페이스쉴드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회사가 직원을 배려하는 느낌"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 쿠팡은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등 모든 사업장에서 '초고강도 거리두기'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. 전국 물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앱을 배포해 작업자 간 1미터 이내 공간에 머무르면 알람이 울리고 해당 접촉자가 자동으로 기록된다. 또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 셧다운 조치, 체온 및 증상 수시 체크, 마스크와 장갑 착용 준수,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, 흡연시설 및 휴게실 등에 마킹 표시, 안전감시단 인력 배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. 쿠팡은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직원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하고 60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고용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